

# 장흥군, '편백산업 활성화' 파트너 확보

### (주)대명소노시즈-(주)지앤지와 편백산업 활성화 협약 체결 김성 군수 "지속가능 편백산업 성장 위해 협업 확대할 것"



장흥군은 4일 군청 상황실에서 (주)대명소노시즈, (주)지앤지와 '편백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 장흥군수, 정현철 (주)대명소노시즈 대표이사, 강태구 (주)지앤지 대표이사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제품생산 주원료인 편백 정유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는 각 사가 가진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편백 제품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공동 마케팅 홍보와 관광·체험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업하기로 했다. (주)대명소노시즈는 독일산 프리미엄 메모리 폼 매트리스와 침구, 프레임 등 배딩 제품 외에 슬립 부츠, 담요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을 출시하고 있다. (주)지앤지는 편백 관련 제품 제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편백산업 성장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 완도군, 해양치유산업 순항 '상복도 터졌다!'

### 2024 대한민국 최고 경영 대상 시상식서 '해양치유'로 대상 수상



완도군은 지난 4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 대상」 시상식의 도시 브랜드 경영 부문에서 '해양치유'로 대상을 수상했다. 「2024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 대상」은 매경미디어그룹, 매경닷컴, 매경비즈가 주관하고 매일경제신문, M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식약처가 후원하며, 매년 뛰어난 경영전략과 성과를 보인 기업,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완도군은 저출산,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지자체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인 해양치유산업을 9년 전부터 육성해 왔다. 해양치유는 해양자원을 활용해 심신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으로 완도군은 청정한 환

경, 다양한 해양자원 등을 보유해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로 꼽히며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각종 해양치유 공공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해 왔으며 그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16개 테라피실을 갖춘 해양치유센터가 개관하면서 산업이 본격에도 올랐다. 해양치유센터는 개관 이후 현재까지 1만 9천여 명이 다녀갔으며 해양치유이 효능이 입소문을 타면서 힐링의 핫플레이스 떠오르고 있다. 또한 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해양기후, 해양문화치유, 약산 해안치유의 숲, 청산 해양치유공원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완도군은 해양치유를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선도해 나간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치유산업은 우리 완도라서 가능한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며 덧붙여 "해양치유를 기반으로 하여 완도를 웰니스 해양관광 도시와 우리나라 대표 치유의 섬으로 조성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2023 K-웰니스 푸드&투어리즘 페어'에서 2년 연속 K-웰니스 브랜드 대상, 'K-브랜드 어워드'에서 대상, '제1회 한국 지방자치회회 지방행정혁신 대상'에서 최우수상 수상, 이번 수상까지 '해양치유' 분야에서만 4관왕을 차지했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기자

# 해남군 "지역경제 활력 더한다"

### 관내 124개 사회적경제기업 운영...12개 지원사업 다채롭게 추진

해남군이 지역경제의 한 축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의 4개 유형이 있다. 해남군 내에는 사회적기업 9개소를 비롯해 마을기업 20개소, 자활기업 6개소, 협동조합 87개소 등 총 124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역경제의 특색 있는 밑거름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민선7~8기 중점과제로 선정해 지역내 다양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국도비가 축소됨에 따라 군은 자체 사업개발

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4개사업 1억 2,000만원의 군비를 추가 편성하는 등 12개 사업, 7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인력지원, 사업개발 등을 지원한다. 새로 신설된 사업은 마을기업 분야에서 올해 처음 3개소 연할 마을기업에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하는 지역플랫폼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의 성과로 해남군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행안부 주관 2022년 사회적경제 육성 우수사례로 뽑히는데 이어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국가의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축소된 가운데 군비를 늘려 자체사업을 신설하는 등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계속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기자



# 진도군, 2025년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사업 선정

### 200억 투입...청년층 인구유입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 기대

진도군이 전라남도에서 공모한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4㎡(32평형), 60㎡(24평형) 이하의 임대아파트를 50호 이상 건립하고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거주기간은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10년까지 거주가능하고 청년은 취업 여부에 따라 1회 연장, 신혼부부는 양육하는 자녀 수에 따라 1~2회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도비 150억원에 군비 50억원을 더해 총 200억원을 투입해 집도입 일원에 만원주택

60호를 신축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전라남도도와 전남개발공사가 협업체 2025년 1월에 착공, 2026년 4월 입주목표로 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진도에서 살아가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또한 만원주택 신축이 집이 없어 떠나는 인구유출을 막고 살기좋은 청정 진도군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